

I. 개 요

1. 일시 : 2014. 11. 13(목) 16:00~18:00

2. 장소 : KIEP 11층 회의실

3. 발표자(1) : 박혜림 미국 재무부 Research Economist

4. 제 목

- Liquidity Risk, Bank Networks, and the Value of Joining the Fed

5. 참석자(총 10명)

박혜림 Research Economist	(미국 재무부)
최윤식 연구위원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이웅 부연구위원	(KIEP 아시아태평양실)
한민수 부연구위원	(KIEP 국제거시금융실)
권기수 연구위원	(KIEP 구미·유라시아실)
윤여준 부연구위원	(KIEP 구미·유라시아실)
김진오 전문연구원	(KIEP 구미·유라시아실)
고희채 전문연구원	(KIEP 구미·유라시아실)
박미숙 전문연구원	(KIEP 구미·유라시아실)
오태현 전문연구원	(KIEP 구미·유라시아실)

II. 주요 발표 내용

□ 1920년 전후 은행들의 연방준비제도 회원 가입결정요인과 가입이후 은행들의 자산포트폴리오(Asset Portfolio)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함.

□ (편익과 비용을 고려한 회원가입) 연방준비제도는 은행들의 유동성리스크(liquidity risk)를 완화시키는 등 거시건전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를 함.

- 은행들의 연준 회원가입은 가입에 따른 편익(예를 들면 유동성리스크 완화)과 비용(연준으로부터 규제)을 고려하여 선택함.

o 연준 회원가입을 통해 연준이 보유한 네트워크(network)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고려됨.

□ (은행들의 연준 회원가입 결정요인) 어떤 은행들이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에 회원으로 가입하였는가와 함께 가입한 은행들의 자산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함.

- 연준에 회원으로 가입한 은행들은 현금(cash)은 감소된 반면, 대출(loan)은 증가하였으며, 은행 대출이 계절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지는 은행의 유형에 달려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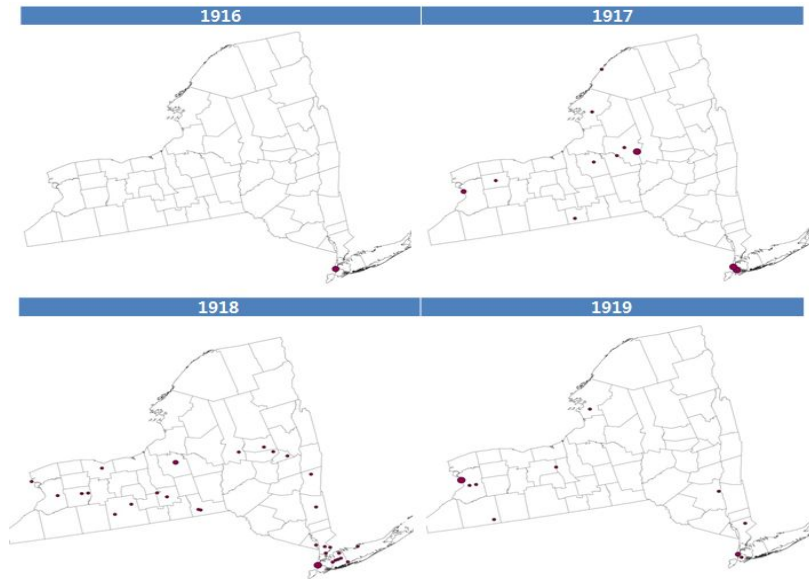
<표 1> 은행들의 연준 회원가입여부

	현금과 대출수요에 대한 계절적수요	
	높음(High)	낮음(Low)
유동성공급자 (liquidity provider)	Y	Y
유동성수요자 (liquidity user)	Y	N

□ **(저조한 연준 회원가입)** 연방준비제도는 거시건정성 향상을 위해 설립되었는데, 1920년대 초에 약 1,604개(주인가은행의 8%)의 주인가은행만이 연준의 회원이 되기를 원함.

- 이에 미국 의회는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연준의 회원(membership)이 되기 위해서는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너무 높다는 사실을 밝혀냄.

<그림 1> 신규 연준 회원들의 지리적인 위치(1916~1919년)



□ **(연준 회원가입 원인)** 연준의 회원가입은 회원가입으로 인한 유동성문제와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음.

- 해당은행이 은행 간 네트워크(interbank network)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가 연준의 회원가입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침.
- o 연준의 할인창구(discount window)를 직접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를 이용해 다른 은행들에게 간접적으로 유동성(liquidity)을 제공하는

은행들은 연준의 회원으로 가입함.

- o 반면 다른 은행들로부터 유동성을 제공받는 은행들은 연준의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음.
- o 결국 연준의 회원가입으로 얻는 편익이 손실보다 큰 경우 은행의 유동성 리스크를 줄이고, 이를 통해 다른 은행에게 유동성을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연준의 회원으로 가입함.
- 또한, 계절적인 요인에 따른 은행대출도 연준의 회원가입 고려사항이었는데, 당시 은행의 파산은 기업의 부채가 50%이상 증가하고 주가가 격이 8%이상 하락할 때 발생하였음.
- o 특히 대규모 은행파산은 주로 봄과 가을에 일어난 것으로 조사됨.

□ **(단일은행제도 개선 노력)** 국가통화위원회(National Monetary Commission: NMC)는 세계 각국의 금융제도를 연구한 결과 미국만이 단일은행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단일은행제도는 비분산 투자형태로 은행의 지불준비금을 피라미드 식으로 준비도시(Reserve City)와 중앙준비도시에 있는 은행들에게 예치함으로써 유동성위기를 극대화함.
- 국가통화위원회(NMC)는 단일은행제도를 철폐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연준을 설립하여 계절적 수요에 따른 유동성위기 극복을 제안함.
- o 연방준비제도는 소규모의 금융위기를 대처는 물론 유동성 공급을 통해 금융위기가 전파되는 것으로 방어하는데 효과적이었음.

III. 주요 토론 내용

- **(연방준비제도 설립이유)** 연방준비제도는 금융시장 안정, 물가 및 고용 안정을 위해 설립됨.
- **(복수의 규제감독을 가지는 미국 은행 시스템)** 미국의 은행은 연방정부로부터 감독을 받는 은행과 주정부의 감독을 받는 은행이 공존하는 독특한 은행시스템을 가지고 있음.
 - 미국 은행은 연방준비제도(Fed), 재무부 산하의 통화감독청(OC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같은 복수의 감독기관으로부터 감독을 받는 구조임.
 - 미국 중앙은행은 1913년에 모든 연방인가은행(national bank)들에게 연방준비제도의 회원을 의무화하였으나, 주인가은행(state bank)은 회원가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이에 대부분의 주인가은행은 연방준비제도 회원가입으로 인한 편의보다는 규제에 의한 비용이 크다고 판단하여 가입을 하지 않음.
- **(글라스스티걸법 제정 및 폐지)** 글라스스티걸법(Glass-Steagall Act)제정으로 상업은행의 업무와 증권 산업의 업무가 분리됨.
 - 1933년 제정된 글라스스티걸법은 상업은행이 기업의 유가증권을 인수 또는 중개하는 것을 금지하며, 투자은행에 대해서도 상업은행의 업무와 증권 산업의 업무를 분리시킴.
 - 동 법에 따라 당시 상업은행은 투자은행 운영부서를 매각하는 한편 투자은행도 그들의 예금업무를 중단함.
 - 그러나 상업은행의 증권과 보험 업무에 대한 제한으로 미국 은행들은 외국은행들에 비해 경쟁상 불리했기 때문에, 1990년대 이후 글라스스티걸법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대두됨.

- 결국 동 법은 1999년에 폐지되어 증권회사와 보험회사가 은행을 매입하는 것과, 은행이 보험과 증권을 인수하고 부동산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됨.
- 아울러 각 주정부는 보험 업무에 대한 규제권한을 유지하지만,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증권 업무를 계속해서 감독함.
- 또한 통화감독청(OCC)은 증권인수 업무를 하는 은행 자회사를 규제할 권한을 보유하고, 모든 부동산 및 보험 업무와 대규모 증권 업무를 하는 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연방준비제도가 감독할 권한을 가지게 됨.
- 그러나 이후 글라스스티걸법의 폐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음.
- **(지방분권적인 연준의 구조)** 연방준비제도가 독특한 구조를 가지게 된 배경은 1913년 이전 당시 헌법의 견제와 균형, 주정부의 권리 보장 등과 같이 권력의 중앙 집중을 방지하기 위함.
 - 미국 정부는 20세기 초기에 빈발하는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은행 창설의 필요성을 주장함.
 - 이에 경제계에서는 민간주도의 중앙은행을 주장하는 월가와 지방분권체제를 주축으로 분산형 연방준비제도의 확립을 요구하는 지방의 농업종사들과의 대립이 심화됨.
 - 이에 연방의회는 양자의 균형점을 찾아서 1913년 연방준비법을 통과시킴.
- **(연준의 구조)** 미국은 12개의 연준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해당 지역도시들에 지점을 두고 있는 연준 은행은 연방준비제도의 회원인 해당 지역의 민간 상업은행들이 소유하고 있는 준민간기관임.

- 12개 연준이 있는 도시는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캔자스시티, 댈러스, 필라델피아, 리치몬드, 보스턴, 애틀랜타, 클리블랜드, 미니애폴리스, 세인트루이스임.
- 연준이사회는 워싱턴 D.C.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연방준비제도의 최고결기관임.
- 특히 본 연구에서 뉴욕이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이유는 뉴욕은 미국의 대형 상업은행들이 많으며, 이들 대형 상업은행들의 안전성과 건전성은 미국의 금융시스템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기 때문임.

<그림 2> 12개 지역연방준비은행

